

내달 전기·가스요금 2300원 이상 ↑ …한풀 꺾인 물가 악재

10월 전기로 kWh당 4.9원 인상…4인 가정 1504원 ↑
가스요금 최소 MJ당 0.4원 올라…800원 이상 부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6%대에서 5%대로 내려갔지만, 다음 달 전기·가스요금이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7월 물가 상승률 6.3%보다는 0.6%포인트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유가 하락 영향으로 기름값 증가세는 주춤했지만,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 항목은 전기료(18.2%), 도시가스(18.4%)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15.7%나 올랐다.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지난 7월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다음 달 또다시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이 계획돼 있어 물가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한전)은 10월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을 킬로와트시(kWh) 당 4.9원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가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 10월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

른 것이다. 기준연료비가 4.9원 오르게 되면 4인 가구 전기요금 부담은 월 평균 전력 사용량(307kWh)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504원(부가세 및 전력기반요금 제외) 정도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올해만 벌써 두 차례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4월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을 각각 kWh당 4.9원, 2.0원씩 올리고, 7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올린 바 있다. 10월 기준연료비가 계획대로 인상되면 4인 가구(월 평균 전력 사용량 307kWh 기준)의 전기요금은 인상 전인 지난 3월에 비해 약 5158원이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고 연간 30조원의 적자까지 전망되면서, 기준연료비보다 큰 폭의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도 함께 오른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세부 인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가스요금은 기준연료비와 정산단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말 기재부와 산업부는 정산단가를 올해 5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 올리는 데 이어 7월 1.9원, 10월 2.3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민수용 연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조정안에 따라 10월 정산단가가 MJ당 1.9원에서 2.3원으로 0.4원 오를 경우, 가구당(월 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 약 800원의 요금 부담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산단가 인상 외에 기준연료비 인상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스요금 추가 인상 논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급등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미수금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회수하지 못한 일종의 손실금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민수용 연료비 미수금 누적 규모는 6월 기준 5조1087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7656억원)보다 3배 늘었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추가로 오를 경우 미수금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산단가 외에 기준연료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7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MJ당 1.11원 올릴 당시에도 정산단가(0.67원)에 기준연료비 인상분(0.44원)을 더해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 가스공사의 미수금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고(高)물가 상황에서 민생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인상 여부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이달 물가 상승률이 잠시 주춤했지만 석유

수출기구(OPEC) 등의 석유 감산 가능성,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추석 성수기 수요 증가 등 불안 요인이 곳곳에 남아 있어 인상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가는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긴 시간을 두고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호기자

기아 스포티지 HEV, “도요타 RAV4보다 성능 앞선다”

獨 3대 車매거진 비교평가서 스포티지 ‘압승’



기아의 준중형 SUV(스포츠크로슬러)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유럽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 평가에서 도요타의 RAV4 하이브리드를 압도하며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 4일 기아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Auto Bild)’이 최근 실시한 하이브리드 SUV 비교평가에서 기아 스포티지가 도요타 RAV4보다 한 세대 앞선 차라고 평가

하며 높은 점수를 줬다. 아우토 빌트는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다.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르트(Auto Motor und Sport),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과 함께 신뢰성 높은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 중 하나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호평은 그동안 글로벌 하이브리드카 시장을 주름잡던 도요타의 대표

모델인 RAV4 하이브리드를 큰 점수 차로 앞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스포티지는 종합점수 563점으로 540점을 받은 RAV4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총 7개 평가항목 중 ▲바디 ▲편의성 ▲주행성능 ▲커넥티비티 등 4개 항목에서 앞섰다. 친환경성 부문에서는 동점을 기록했다. 스포티지는 특히 ‘집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제동능력 등에서 우위를 점해 경쟁차를 상대로 ▲편의성 ▲주행성능 항목에서만 각 13점과 11점씩 높은 평가를 받아 점수차를 벌렸다. 아우토 빌트는 “스포티지는 공인연비와 거의 유사한 100km 당 7.1ℓ의 연료소비량으로 신뢰를 주고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며 “더욱 민첩하고 정확하게 움직여 자신감 있게 운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 180ps, 최대 토크 27.0kgf·m의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구동 모터를 조합해 시스템 최고 출력 230ps, 시스템 최대 토크 35.7kgf·m의 힘을 발휘한다. 또 2WD 17인치 타이어 기준 16.7ℓ의 복합연비를 자랑한다. 여기에 3세대 신규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급 최대 수준의 실내공간과 함께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뛰어난 상품성을 갖췄다. 스포티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지난 6월 독일의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르트가 실시한 PHEV SUV 모델 비교 평가에서도 도요타 RAV4, 오펜 그랜드랜드, 볼보 XC40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최이슬기자

삼성·LG, OLED TV 동맹설 ‘모락모락’



올해 TV 업계의 이목을 끌었던 삼성과 LG의 OLED(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TV 동맹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한중희 부회장이 지난 1일(현지 시간)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2’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LG디스플레이와의 OLED 협력 가능성에 대해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이어 “경제 상황이나 전쟁, 물류 이슈 등으로 인해 소강 상태지만,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언급도 내놓았다. 하지만 삼성과 달리 LG는 동맹설에 대해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김성현 LG디스플레이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최근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신규 고객(삼성전자)이 저의 패널을 사용하려는 내용이 있었고 시장도 그걸 알게 됐다”며 “그래서 상당 부분 진행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김 CFO는 당시 “앞으로도 올레드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시장 창출에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다양한 고객과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이

라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삼성전자는 LCD에서 OLED로 TV 주력 제품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QD-OLED 패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올 초부터 글로벌 점유율 1위인 LG디스플레이와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올해 1월 CES 2022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TV 패널 부족이 심했을 때부터 LG로부터 패널을 구매하고 있다”며 “OLED 패널 구매는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퀀텀닷(QD)-OLED를 이용한 QD-OLED TV를 올해 출시하고, LG디스플레이의 화이트(W)-OLED 패널을 탑재한 OLED TV를 추가로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QD-OLED는 청색 OLED를 발광원으로 사용하고 W-OLED는 흰색 OLED를 발광원으로 쓰는 차이점이 있다. 이후 LG전자도 경쟁사의 올레드 TV 시장 진입이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 입장을 밝히면서 동맹은 공식화하는 듯했으나 양사는 패널 공급 가격과 수량을 정하는 데 있어 미세한 차이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의 QD 디스플레이 생산 수출이 조기에 개선되면서 공급 제약이 해소된 것도 협상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한 부회장이 동맹설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서 삼성이 LG디스플레이와 다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서선욱기자

“추석 막바지 수요 잡아라”…SSG닷컴, 한우 최대 40% 할인

추석 전날까지 택배송·새벽배송 운영

SSG닷컴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 먹거리, 제수, 선물 세트 등을 할인하는 온라인 장보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간소화된 명절 상차림 문화를 고려해 간편식, 특가 상품 물량을 늘렸다는 점이다. 우선 간단히 조리해 명절 식탁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간편식과 밀키트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피코크’ 제수 음식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5000원을 할인해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너비야니’, ‘송편’, ‘고기 완자전’ 등 3종 상품을 구매하고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목표 판매량에 따라 최대 1만원의 SSG머니 페이백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국거리용, 구이용 등으로 수요가 높은 한우 상품도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1등급 구이용 냉장 한우 등심(300g)’은 3만원대 초반부터 ‘1등급 냉장 한우 국거리(300g)’는 1만원대 초반부터 구매할 수 있다. 식용유, 부침가루를 비롯한 필수 제수를 최대 30% 저렴하게 선보이는 기획전도 연다. 장보기 상품 특가 행사 ‘오반장(오늘의 반짝 장보기) 워크’도 함께 실시한다. 건나물, 대추류, 친환경 제수용품을 비롯해 신선 및 가공식품, 명절 선물세트 등을 매일 30종씩 특가 판매할 예정이다. 추석 선물세트 판매도 오는 10일까지 이어간다. 뉴시스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40% 할인 혜택 또는 구매 금액대별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 혜택을 제공하고, 상품권 혜택은 즉시 할인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SSG닷컴은 시간대 지정 ‘ 택배송’과 ‘ 새벽배송’을 추석 전날까지 정상 운영한다. ‘ 택배송’ 상품은 9일 오후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 저녁까지, ‘ 새벽배송’ 상품은 8일 자정 전에 주문하면 9일 오전 6시 이전까지 받아볼 수 있다. 뉴시스

기업 89% “추석 연휴 4일 이상 쉬다”

올 추석 연휴기간에 기업 10곳 중 1곳은 하루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차 수당 부담이나 일감 부족으로 5일 이상 쉬는 기업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79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석이 근무하지 않는 기업 중 11.0%는 ‘3일 이하’로 쉬다고 답했다. 휴무일수 ‘2일 이하’의 응답률은 4.0%, ‘3일’은 7.0%다. 업체들은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는 이유로 ‘일감 부담이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45.3%), ‘일감이 많아서’(21.9%) 등 순으로 답했다. 반면 나머지 89%는 4일 이상 쉬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80.4%) 대체휴일 포함 공휴

일(4일) 모두 휴무한다. 또 ‘5일 이상’을 쉬는 기업도 8.6%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일감이나 비용문제보다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55.4%),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26.8%), ‘일감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10.7%) 등을 이유로 꼽았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65.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65.0%) 수준이다. 지급 규모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 92.6%로 가장 많았고, ‘작년보다 많이 지급’은 5.0%, ‘작년보다 적게 지급’ 2.4%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환기자